

문화광장



김정호  
경희대학교 연극영화학과 교수

### 2020년 한국영화산업과 관람료 인상, OTT

CJ CGV가 영화관람료를 1000원 인상해 주중 1만3000원으로 조정했다. 코로나 시대에 영화 관객이 없는 상황에서 요금 인상은 관객 유인 요인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하게 된 데는 지난해의 코로나로 인한 실적 악화가 원인이다.

영화진흥위원회의 2020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에 따르면, 코로나 여파로 극장 관객 수는 2019년 대비 73.7%인 5952만명, 매출액은 2019년 대비 73.3%인 5104억 원이었다. 우리 국민 연평균 극장 관람 횟수도 2019년보다

3.22회 감소한 1.15회였다. 2020년 평균 관람 요금은 2019년 대비 1.5% 증가한 8574원이다. 우리나라 관객 점유율 1위인 배급사인 CJ ENM은 2020년 매출액 기준으로 관객 점유율 17.9%이다. 2020년 전국에 극장 1212개의 스크린을 보유하고 있는 CJ CGV의 2020년 매출액은 2019년보다 1조3588억원이 감소한 5834억 원을 기록한다. 이것은 2019년 대비 매출액의 70%가 감소한 것으로 영업이익도 적자이다.

이런 상황이나 요금 인상을 통해서 적자를 줄여보려는 노력은 자연스러운 결론인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노출된 젊은 층이 영화 관객의 주대상층이라는 점, 그리고 넷플릭스, 유튜브, 왓츠, 티빙 등 OTT(온라인동영상 서비스)가 코로나 시대에 약진하고 있다는 점 등이 요금

인상이 관객들이 극장보다는 다른 경로로 영화를 보게 하는 흐름을 가속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영진위의 2018년 영화 소비자 행태조사에 따르면, 극장 관람률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19~24세 남녀이며 30세 이상은 극장 외 영화를 더 많이 보며 19~29세는 극장 영화를 더 많이 보는 것으로 드러났다. 극장 영화 입장권의 1인 최저 가격으로는 9322원이라고 소비자는 반응했고, 최대 수용가격은 1만1811원이었다. 월 구독료 9500원에서 1만4500원 사이의 넷플릭스에선 미국의 메이저 영화사의 영화들을 볼 수 없는 한계가 있지만, 자체 제작 영화들과 한국 드라마가 20억여 원의 광고비를 들이면서도 불확실한 극장 흥행의 위험을 피하고자 온라인 개봉을 하는 한국 영화들이 늘어나고 있다.

요금 흔히 가성비, 가성비 라는 말을

을 사용한다. 수요와 공급, 가격 등 경제원리와 소비심리 등이 영화 관람 양태에도 작용한다. 제작비를 많이 들이고 스펙타클한 영화 등 극장에서 관람해야 할 영화와 그렇지 않은 영화에 대한 소비자들의 구분도 더 심해질 것이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들과 우리나라의 150억여 원 이상의 제작비를 들인 대작 영화들도 작년과 올해에 극장 개봉을 하지 않고 코로나 이후로 미루고 있다. 많은 돈을 들인 만큼 많은 관객에게 상품을 내놓기 위해서이다. 2020년의 한국 영화들에서도 중 저예산, 여성 서사영화의 비중이 늘었고, 여성 감독의 경우는 2019년 27명에서 2020년 38명의 여성 감독영화가 극장에 개봉됐다. 오프라인이 어렵고 온라인 게임, 온라인 쇼핑, 배달 관련 업종이 호황을 보이는 코로나 시대의 명암이 영화계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사설

### 교묘한 부동산 투기, 자체 조사로 밝혀지나

시작은 거창한데 그 끝은 보잘 것이 없었다. 말 그대로 용두사미다. 제2공항 예정지에 대한 공무원 투기조사 결과를 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압축된다. 교묘한 수법으로 이뤄지는 부동산 투기문제가 기본적인 조사로 쉽게 밝혀지겠는가. 조사 대상에 친·인척 등 차명명은 물론 국토교통부 공무원 등이 제외되면서 투기 규명은 처음부터 한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도 소속 공무원의 제2공항 예정지 내 투기 의혹에 대해 문제 없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감사위는 해당지역의 부동산을 거래한 공무원 14명을 대상으로 취득경위 조사와 부동산거래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의 관련 자료 검토와 현장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이들 중 8명은 부모나 형제로부터 정상적으로 증여를 받았다. 나머지 6명은 소규모 농지를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정보 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공무원도 조사를 했지만 위협하

나 부당한 거래는 없었다고 한다.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현직 공무원의 명단과 거래 내역을 대조하는 자체 조사로 투기 의혹이 풀릴 것으로 기대하는게 잘못이다. 물론 자체 조사 결과대로 제주도 소속 공무원의 제2공항 예정지에 대한 투기가 없었다는 점은 다행스럽게 여긴다. 문제는 전직 공무원이나 차명 또는 친인척을 이용한 투기, 국토부 공무원과 용역진 등은 정작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는 점이다.

특히 제2공항 입지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국토부 공무원에 대한 조사 없이 투기 의혹이 해소될 수 있겠는가. 제주도 자체 조사로 끝났선 안된다는 얘기가. 감사위 스스로 자체 조사 불가 능한 부분도 있다고 인정만큼 마땅히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이는 제2공항 찬·반을 떠난 문제다. 이참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 동의를 제출하지 않은 공무원도 조사를 했지만 위협하

### 제주 과잉전력 해법, 역전송만으로 안된다

제주 과잉전력 해법을 육지부서 받기만 하다가 사상 처음 남는 전력을 내보내는 역전송 시대를 맞았다. 도내 풍력·태양광발전이 의한 과잉생산 탓이지만 과잉전력 해법에 역전송만으로 안된다는 지적이다. 제주 화력발전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에 맞춰 액화천연가스(LNG), 중유 등 필수발전기 운영을 더 줄여 재생에너지 출력을 늘려야 할 필요성도 크기 때문이다. 과잉전력 해법이 보다 근본적으로 이뤄져야 제주의 신재생에너지산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한전거래소는 지난 17일 제주~해남을 잇는 해저케이블을 통해 최초로 시간당 70MWh의 전력을 역전송했다. 제주 전력의 역전송은 올 상반기 7만kW를 계획중인데 이어 내년말까지 완도 변환소를 통해 20만kW 이상 이뤄질 예정이다. 그만큼 도내 신재생에너지 과잉생산으로 인해 발전을 중단하는 출력제한이 심각한 상황이다. 그간 풍력발전 출력제한이 2018년

16회, 2019년 46회, 2020년 77회로 해마다 급증했고, 최근에는 태양광 발전도 처음 중단되는 사태까지 맞았다.

문제는 과잉전력 해법이 역전송만으로 충분치 않다는데 있다. 여전히 역전송 전력량이 도내 급증세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을 감당할지 미지수이고, 역전송도 전력을 받아야 하는 육지부 입장에선 과부하 발생 우려 때문에 언제까지 가능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정부와 도가 계통안정화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와 신재생에너지 총량제 도입 등을 서둘러야 할 이유다. 기후위기·미세먼지 대응과 에너지 전환시대에 맞춰 필수순전 발전기에 해당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중유발전 최소화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

모자라도, 남아도 격정인 전력 한 순간의 정전을 막으면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모두가 더 많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열린마당

### 매주 수요일은 축산환경 개선의 날



김태범  
농협제주지역본부 농축산지원단 차장

최근 환경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점차 높아지면서 축산악취 오염에 대한 민원과 함께 축산물의 가치를 소비하고자 하는 의식이 높아졌다. 일부에서는 축산업이 지구 온난화, 수질 오염 등 환경 파괴의 주범이라는 비난과 동물 식육에 대한 채식주의자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는 축산악취 방지 및 저감을 위해 축산악취방지 패키지 3법(악취방지법·축산법·가축분뇨법)이 발의되면서 축산업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표(2020년 11월)한 가축분뇨 발생량은 2008년 4000만t, 2019년 5000만t에서 2030년에는 5000만t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퇴액비 살포가 가능한 초지 면적은 2005년 4만ha, 2018년 3만ha로 감소해 향후 가축분뇨 처리 대안이 우려되고 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축산문제 해결에 가장 시급한 것은 축산농가의 인식 변화와 참여 의식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매주 수요일을 축산환경 개선의 날로 지정했다. 이는 2018년 농협의 '클린UP 축산환경개선 날', 한우·한돈협회의 '축산농가 청소의 날'을 통합해 시작됐으며 2020년부터는 전국 일제 소독의 날과 통합해 도축장, 전통시장, 소규모 농장 등 2만2000여개소에 소독을 같이 실시토록 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축산환경 개선의 날에 제주지역 농가의 참여는 부끄럽지만 아직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농협제주지역본부와 축협은 올해부터 내실있는 행사를 위해 매주 화요일 일괄 문자 발송, 수요일 자율적 행사 실시, 목요일 행사 결과 보고를 실시하고, 매월 1회 축협 주관 행사 실시, 임직원 결의문 낭독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매주 축산환경 개선의 날에 적극 참여할 때 축산악취 제거와 가축 질병 예방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가 2025년까지 1만호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도 늘어날 것이다.

뉴스-in

###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전검토 단계 배치

특별법·관련 조례 개정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가 송악산언실천조치 6호인 제도개선 분야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개발사업 시행 승인 전 사전검토 단계에 배치한다고 밝혀 주목.

제주도는 19일 원희룡 지사 주재로 주간정책 조정회의를 열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사업 사전검토 단계에 배치하기 위해 관련 조례 및 특별법 개정 방안 추진을 검토.

원 지사는 "사업자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부여해 경제적 낭비를 방지하고, 행정은 행정력 낭비 방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

김다혜기자

“현안사업 신속 추진”

○...제주시가 19일 개최한 2021년 주요 현안사업 보고회에서는 시민이 체감하고 시정에 만족할 수 있도록 더욱 속도감 있게 현안사업을 추진할 것을 목표로 제시.

이를 위해 향후 중간 보고회와 최종 보고회를 진행해 연중 추진한 현안사업 해결 여부를 확인하

고, 제주시 발전을 위한 현안을 추가로 발굴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

이날 안동우 시장은 “시민 안전과 행복을 위해 시정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고, 국비 절충과 제도개선 등에도 모든 부서가 힘을 합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

이윤형기자

“61년 전 학생들 희생 기억”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제61주년 4·19혁명일'을 맞아 19일 “학생들이 뿌리내린 4·19의 정신으로 연대하며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갈 것”이라는 내용의 기념사.

이 교육감은 이날 기념사에서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의 일상의 바탕에 학생들의 희생이 있다”며 “61년 전 학생들을 통해, 오늘의 미안함을 통해 민주주의는 당연히 오는 것이 아님을 깨닫는다”고 강조.

이어 “아이들을 정의로운 민주 시민으로 키워가면서, 우리의 길을 아이들의 미래로 펼쳐 보이겠다”는 입장을 피력.

진선희기자

###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전주이공 군철(향년 82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릴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1년 4월 20일

부인 설정자  
아들 이호준 며느리 김현영  
딸 이윤실 사위 신교진  
정리 주연 김정구  
주연 정민

### 태양광 설치

- ◎ 주택(단독 및 공동주택)
- ◎ 건물(상업용)
- ◎ 발전사업 & 유지보수
- ◎ 폐 태양광 철거 & 리파워링

Haenuri Energy Co., Ltd.  
**(주)해누리에너지**  
http://해누리에너지.com

**T. 712-8081**

###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 키폰·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 건물내통신 설비공사
-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 통신전주건설(가입자부담공사)
- ▶ 네트워크 설비공사
- ▶ 전관방송 설비공사
-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현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구내통신공사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점: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064)725-0993

### 재산상속 한정승인 공고

•성명: 방홍진(1992. 11. 16생)  
•최후주소: 제주시 평양길 15-1 (이도아동)

상기자는 2021년 1월 14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은 2021년 4월 1일 제주지방법원 2021년단142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니다.

이에 민법 제10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와 수증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는 청산에서 제외됨을 회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2. 연 락 처: 제주시 광명중길 65-1, 702동 201호 (노형동, 드래모아 7차)

2021년 4월 20일  
공고인(상속한정승인자) **홍명호**

###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